

③ 도롱이, 샷갓

전통사회에서 사용하던 우장(雨裝)을 말한다. 도롱이는 벧짚이나 보릿짚, 밀짚 또는 띠(茅)로 만들며 속은 엮고 겉은 재료를 늘어뜨린 것으로 어깨에 걸쳐 둘러 입는다. 대개 샷갓과 함께 받쳐 쓴다. 샷갓은 대나무나 갈대로 엮어서 만든 우장용 연장이다. 원뿔 모양으로 가장자리는 여섯 모가 나 있으며, 우산처럼 양어깨를 가릴 수 있고 속에는 미사리[머리에 쉽게 쓸 수 있도록 샷갓 안쪽에 만든 둥근 테]를 달아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④ 말, 되, 홑

말, 되, 홑은 곡물이나 소금 또는 액체를 잴 때 사용하는 도량형의 한 단위이자, 이를 가늠하는 그릇이다. 대개 나무로 만들며, 장방형의 모습을 띤다. 말은 되의 10배를 뜻하며, 이를 대두(大斗)라 하고, 이의 절반을 소두(小斗)라고 한다. 또 되는 10홑을 말하며 이를 대승(大升)이라 하고, 이의 절반을 소승(小升)이라 한다.

⑤ 메[떡메]

물건을 내리칠 때 쓰는 연장이다. 굵고 짧은 나무를 둥글게 깎아, 중간에 구멍을 뚫어, 여기에 자루를 끼웠다. 주로 말뚝을 박을 때나 땅을 다질 때 사용한다. 떡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떡메’라고 부른다.

제2절 어로

1. 어로기술

1) 어로기술의 역사²⁵

(1) 개요

울진지역의 해안선은 서해나 남해에 비해 비교적 단조로우며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지 않은 까닭에 전통어로의 형태는 서남해의 그것보다 간단한 편이다.²⁶ 그러나 수산업은 구조적으로 매우 복잡성을 띠고 있는 까닭에 이질적인 여러 구성요소가 시간상으로 병존하는 모습

25.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어로기술 변천사가 아닌 울진지역의 어로기술 변천사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26. 김광언, 1987, 「수산」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편, 문화재관리국, 418쪽

을 지니고 있다.

물고기의 서식은 물의 온도, 염분의 농도, 물의 깊이, 짚의 규모, 먹이의 종류와 양, 해류의 흐름 등 수문학적, 생물학적 환경요소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동해안, 특히 울진 연안 어장의 특산물로는 명태, 대구, 청어, 멸치, 송어, 고등어, 방어, 가자미, 도루묵, 오징어, 대게, 새치 등이며, 계절에 따라 난류성 어류[멸치, 고등어, 정어리, 꽁치]와 한류성 어류[명태, 대구]로 구별된다.

어로 도구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물고기의 성장과 서식 조건에 조응하면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띄며 전개되었다. 전통적 어로 도구로는 고깃배, 그물, 어전(漁箭), 작살, 낚시, 어항, 머구리[잠수구]를 비롯하여 다양한 잡어잡이 도구 등이 있다.

울진지역의 전통적인 고깃배는 크게 먼바다[원근해] 고깃배 유형과 가까운 바다[연안어장] 고깃배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먼바다 고깃배는 자망질, 물이질을 하는데 용이하도록 앞부분[선수]이 좁고 길며, 배의 높이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대개 돛은 하나이며 키는 짧은 편이다. 가까운 바다 고깃배는 몸집을 작게 하면서 바위 사위를 에돌면서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²⁷

그물은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갈피(葛皮), 마, 짚, 싸리 등 천연섬유가 대종을 이루었으나, 이후 합성섬유의 출현으로 무명, 면사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물은 어로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형태로 만들었으며,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하다. 물이 깊고 바다의 굴곡이 심하며 날물[썰물], 들물[밀물]의 차이가 심하지 않은 울진 연안 어장에는 명태나 고등어잡이에 편리한 자망, 후릿그물, 덩장, 물이그물 따위가 대종을 이루었다.

해안에 있는 연안촌락이나 도서촌은 그 촌락 앞에 자리한 바다에 대하여 언제나 용익권(用益權)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 성문법의 근거에 따라 어업권이 새로이 규정되었다. 수산업법이 규정한 공동어업의 대체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 공동어업권의 내용

구분	면허 기간	개요
제1종 공동어업	10년	채포대상 : 패류, 해조류, 정착성 수산 동식물 어장구역 : 최간조시 평균수심 10m 이내 [강원, 경북, 제주 : 15m] 어업방법 : 맨손, 나잠 등의 단순한 방법
제2종 공동어업	5년	어장구역 : 최간조시 해안선에서 500m 이내 어업방법 : 저인망, 선인망, 부망, 소형어선어업 등
제3종 공동어업	5년	어업구역 : 해안선에서 1000m 이내 [경기, 충남, 전북 : 2000m 이내] 어업방법 : 건망, 대모망, 인망 등

27. 권삼문, 1996, 「어업기술의 역사」 『한국민속사논총』, 지식산업사, 684쪽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예외 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해안생태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지식을 갖고 있다. 주민들은 기후, 수산동식물의 생태, 바닷물의 흐름, 해저의 지형 등 해안생태계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민속 지식을 순서 없이 간단히 살펴보자.

- 음력 7일인 ‘조금’과 23일인 ‘대조금’에는 고기가 많이 잡힌다. 그러나 대조금 때는 날씨가 불순할 경우가 많다.

- 꽃게는 바다 밑 수십 미터에서 서식하는데 꽃게가 해수면으로 올라오면 날씨가 좋지 못할 징조이다.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여 꽃게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다.

- 오징어는 썰물 때 많이 온다. ‘맞물’ 때는 줄어든다. 물이 차가우면 오징어가 없다.

- 양미리는 배추가 푸릇푸릇할 때부터 여름까지 나타나는데 치어와 중간 크기의 것이다. 겨울[동지섣달]에 나는 것은 굶다.

(2) 단순 채포(採捕)시대

과거 전통사회에서의 채포어로 형태를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사례는 미역, 진저리, 다시마, 돌김 등 해조류의 채취 활동이다. 울진지역의 경우 채포 어로행위에 주로 사용되는 어구로는 수중의 짬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틀개, 낫대[설낫], 수중의 고기 흐름을 살펴보기에 용이한 짬수경, 창경을 비롯 수중에서 직접 고기를 찢러 잡는 작살, 건조용 도구인 발채, 연안 어장에서 미역채취 때 많이 이용되는 운반용 무동력선인 떼배 등이 있다.



<그림 26> 떼배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틀개의 경우 애초에는 쇠붙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목재로만 제작하였으나, 최근에는 농사용 낫이나 긴 장대를 손잡이로 매달은 낫대[설낫]가 등장하였다. 짬수경은 나무로 만든 사각형의 틀에 유리를 끼워 사용했으며, 최근에는 성능이 좋은 수경으로 전화(轉化)되었다.

짬수경을 사용하기 전에는 물고기 기름을 물 위에 뿌려 물속의 고기 흐름을 관찰했다 한다.²⁸ ‘떼배[혹은 띠배]’는 뗏목 형태의 작은 배로 돛이나 다른 동력을 이용하지 않고 순전히

28. 권삼문, 1996, 앞 책, 687쪽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 움직이는 무동력선이다. 떼배의 재료는 7~8년생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8개가량의 통나무를 엮어 만든다. 대개 길이는 310cm, 폭은 130cm가량이다.

(3) 망(網) 어업

망 어업은 일반적으로 그물을 배에 싣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을 일컫는다. 망 어업은 주로 수심이 깊은 곳에서 조업하는 어로 방식으로 이에 부합하는 주목망[柱泊, 주벽], 미중선[尾中船, 꼬챙이배] 어업이 발달했다. 이때부터 어망 제조법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해 갈피망(葛皮網)과 감물이나 송진을 먹인 면망(棉網)이 출현하였다. 또 그물의 수명이 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물에 돼지 피를 먹여 사용하기도 했다. 주목망은 자루 모양의 어망을 지주나 나무 닻으로 고정하여 조류를 따라 내왕하는 어류를 포획하는 고정 어구이다.²⁹ 주목망과 함께 많이 사용한 망어구로는 「꼬챙이배」에 의한 망어업을 들 수 있다. 꼬챙이배는 주목망보다 더 깊은 곳에 설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배에 장치하여 고기를 잡으므로 어류를 쫓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지녔다. 어로 방법은 선미[배꽂지] 쪽에 장치된 ‘호롱통’에 감겨진 밧줄을 풀면 그물과 연결된 ‘아랫질대’가 내려가 물속에서 자루 모양으로 펼쳐지게 되는데, 이때 「호롱통」을 이용, 그물을 올리고 내리는 반복행위를 통해 고기를 잡는다. 대개 2~3인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한다.

후릿그물 어업은 사빈(沙濱)이 발달된 동해안의 해안 특성에 유익한 어로 방식으로 지인망(地引網) 어업의 한 갈래이다. 후릿그물 또는 휘리그물 어업은 해저가 모래나 펄로 된 평탄한 내만(內灣)에서 울타리처럼 생긴 긴 그물을 수중에 길게 쳐놓은 뒤 그물의 양쪽 끝을 육안(陸岸)에서 잡아당겨서 고기를 잡는 어로 방식이다. 울진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꼬챙이배’ 방식보다 ‘후릿그물’방식이 널리 보급되었다.

후릿그물[지인망]에는 ‘멸치후리기’와 ‘대지인망’의 두 종류가 있다. 멸치후릿그물은 어부들이 직접 제작한 면사망을 주로 사용했으며, 대지인망은 마사와 갈피[참]를 혼합하여 제작한 그물을 사용하였다. 후릿그물어로에서는 멸치의 생태와 물의 흐름 등에 익숙한 선협자[지휘자]³⁰가 있고, 배로 그물을 놓는 사람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망어업의 원리는 주로 정치성 어로 방식과 어구의 어법을 계승하면서 어구를 쉽게 이동, 설치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9. 권삼문, 1996, 위 책, 691쪽

30. 울진 연안의 해촌에서는 과거 1960년대 말까지 ‘멸치후리기’가 대성황을 이루었다 한다. 대개 5~6월경에 멸치후리기가 성행하며, 마을에서 고기잡이에 경험이 많은 어부가 포구의 높은 곳[망산]에 올라 멸치떼의 이동을 관찰하다가 멸치떼를 발견하게 되면 “후리아 후리아”고 소리친다. 이때 소리를 들은 마을의 남녀노소 모두가 갯가로 나와 후릿그물을 잡아당겼다고 한다. (제보자: 이학성, 82, 남, 죽변면 죽변3리 봉수마을)

2) 어로기술의 실제³¹⁾

(1) 해산물 채취 관행

① 돌김

예부터 동지 무렵에서 이듬해의 초봄에 채취하는 돌김은 매우 귀한 해조류로 여겨졌다. 돌김은 주로 해안의 돌출된 바위에 자생하며 부녀자들에 의해 채취된다. 돌김을 채취하기 위한 전문적인 도구는 필요치 않으며, 주로 전복 껍데기나 끝이 넓적한 호미를 사용하며, 채취한 돌김은 물이 가득 담긴 그릇(함지, 반티) 위에 김발(대나무로 만든 발)을 띄우고 발에 맞추어 짠 네모꼴의 틀을 올려놓은 다음, 김을 고르게 펴 날장이 되도록 만든다. 이것을 건져 통풍이 잘되는 곳에 놓아두면 완제품이 된다. 돌김은 10장을 1점이라 부르며, 10점을 한 통이라고 한다.

② 미역

울진의 해촌에서는 미역, 돌김, 진저리 등을 비롯한 각종 해조류의 서식처인 수중의 바위 군락을 ‘짬’³²⁾이라 일컫는다. 짬에서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은 가구(家口)를 단위로 동입참(洞入參)과 곽암입참(霍岩入參)³³⁾을 거친 가구이어야 한다. 동입참과 곽암입참은 대개 동규(洞規)로 규정되어 있으며 입참에 참여하는 가구는 상당한 물적 부담을 책임지고 있다.

짬 분배는 어촌계 회원³⁴⁾이면 누구나 가능하나, 대개 어촌계에 가입한 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짬의 분배는 직고동의 자치관행의 사례에 따르면 ‘화포행사권[미역채취권]’ 획득한 가구들이 매년 6월 15일[음력]에 마을회관에 모여 추첨으로 결정한다.³⁵⁾

미역의 채취는 대개 음력 동짓달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 무렵에 채취해 말린 미역이 최상품³⁶⁾으로 거래된다. 미역채취를 위해 가장 요긴하게 쓰이는 ‘낫대’는 낫길이

31. 어로기술의 실제편에서는 울진지역의 연근해에서 행해졌거나 행해지고 있는 어업기술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어로기술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현지조사(주로 죽변면 죽변3리, 기성면 기성리, 평해읍 직산2리)와 함께 [김광연, 1987, 『산업기술』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편; 권삼문, 1991, 『해촌의 미역채취 관행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태호, 1998, 『정치망 어업의 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석사학위 논문;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1994, 『민속학 연구』2; 울진군-안동대학교, 1991, 『울진의 문화재』; 국립수산물진흥원, 1987, 『어구분류 및 각부명칭』;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8, 『울진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참고하였음을 밝혀둔다.

32. ‘짬’은 해저에 발달된 바위군락으로 울진사람들은 ‘미역방우’ ‘짬방우’라고도 부른다. 울진 해촌마을의 주된 경제를 담당해온 생업 현장으로서 대개의 어촌계는 ‘짬’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짬’과 관련한 생업 기술과 자치 관행, 어로 민속이 오늘날에도 선명하게 전승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미역 채취기술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평해읍 직산 2리[직고동]의 채취 관행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33. 짬을 한자어로 표시하면 곽암(霍岩)이라고 한다.

34. 직산2리 직고동 어촌계원의 가입자격은 6개월 이상 직고동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어촌계원이 되면 마을 앞바다 800m내외의 마을 공동어장[과거 일종 공동어장]과 1km 내의 제2종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35. 추첨 방법을 ‘구지뽑기’라고 하며, 이 같은 방법은 짬에서의 생산력이 각각 달라서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선택된 방법으로 분석된다.

36. 울진지역에서 생산되는 미역 중 최상품으로 여기는 북면 나곡리 고평미역을 비롯하여 돌미역[돌곽]은 한 단[10 오리 기준]에 대개 15~20만 원 선에 거래된다. 미역은 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처럼 미역의 중요성은 “울진사람 미역 없으면 다 죽었지!”라는 향언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다.

30cm, 넓이 2~3cm가량의 낫이 달린 긴 도구로서 주로 박달나무로 만든다. 수심이 5~6m 이상의 깊이에서는 박달나무가 아닌 참나무로 낫대의 자루를 만들며 여기에 ‘틀개’를 달아 사용한다. ‘수심곽[깊은 물의 미역]’은 주로 잠녀[潛女; 해녀]와 머구리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며 ‘오들곽[얕은 물의 미역]’은 배 위에서 작업을 한다. 짬수경은 바닷속의 해조류를 쉽게分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물 위에 어고[魚膏; 물고기 기름]를 뿌려 물속을 들여다보기도 하였다.³⁷

미역짬에서 보다 많은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농부가 논에서 김매기를 하듯이 어부는 ‘짬매기’를 한다.³⁸ 짬을 매는 시기는 매년 입동을 전후한 약 보름간에 작업이 이루어진다. 입동 전 일주일, 입동 후 일주일간이다. 짬을 매는 도구로는 ‘쓸개[썰개]’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쓸개를 들고 거룻배 위에서 수중의 미역짬을 ‘쓸[썰]른다’. 바위의 생김새에 따라 작업능률이 오르내린다. 짬매기 외에 미역을 계속해서 풍부하게 거두기 위하여 투석(投石), 암면(岩面), 폭발(爆破), 윤채(輪採), 숙음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³⁹

미역을 채취하는 방법에는 거룻배[혹은 때배]나 잠수선[머구리]를 이용하고 또는 지역 출신의 해녀가 자맥질해 들어가서 수중에서 작업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거룻배[혹은 때배]를 이용할 때에는 ‘짬수경’[채경]과 ‘설낫’으로 거둔다. 채취된 미역을 해변의 모래밭에 널어 말리다가, 최근에는 발채 위에 널어서 말린다. 미역을 완전히 건조하기까지 햇빛이 나는 날로 쳐서 3~4일이 걸린다.

③ 진저리

진저리는 고사리과에 속하는 해초로 그 모습은 아스파라거스 잎사귀와 비슷하며, 주로 나물로 무쳐 먹는다. 진저리를 채취하는 시기는 대개 음력 2월부터 4월까지의 기간에 이뤄진다. 진저리를 채취할 때는 때배나 전마선을 이용하며 창경이나 잠수경으로 물밑을 살펴, 낫대[설낫]로 끊어서 걷어 올린다. 진저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먹으며 고추장이나 된장에 묻어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 또 진저리는 설사에 효험이 있는 민간 의약재로 사용된다.

37. 조선조 영조시대의 홍양호(洪良浩)는 『북새기략(北塞記略)』에서 함경도의 곤포[다시다], 해곽의 채취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바, “매년 3~4월에 배를 타고 들어가 수면에 어고[고기의 기름]를 뿌려 수저(水底)를 통견(洞見)할 수 있게 하여 장목(長木)으로써 절취한다.”라고 기록하였다.

38. 개닭기, 기세닭기라고 하는 곳도 있다. 기성면 사동리 일대는 자연산 돌김을 많이 채취하는 곳이다. 12월 초부터 이듬해 2월 하순까지 석 달에 걸쳐 주로 돌김을 뜬다. 꼭두새벽에 쇠갈퀴로 수중에 있는 바위의 잡초를 끊어내고 나면 물결에 밀려든 김 포자가 그 바위에 붙어 사나흘 지난 뒤에 돌김을 거둬드릴 수 있다. 과거에는 짬매기[갯바위 닭기], 투석 등의 방법이 소극적인 미역 양식법의 일종이었다. 최근에는 울진군이 어촌계별로 짬매기에 드는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있다.

39. 어촌계의 어업 활동을 해당 지역 군수가 인가한 ‘어촌계 인가서’에는 수산동식물의 증식을 위하여 투석, 기세닭기[짬매기, 갯바위 닭기] 등의 의무수행을 강제 규정하고 있다.

(2) 그물을 이용한 방법

① 모리그물

이 그물의 크기는 길이가 800~1,000m 정도이고 수심에 따라서 폭은 40~80m 정도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고기떼가 몰려 오면 육지에서라도 식별할 수 있으므로 배를 타고 나가서 어군탐지기를 사용하여 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이 마을에서 떼를 지어서 다니는 고기가 주로 멸치나 양미리이다. 이때 그물이 쳐져 있지 않은 곳으로 고기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나무에 죽은 오리[갈매기]의 깃질을 묶어서 물거품을 일으켜 고기들에게 겁을 주어서 도망가지 못 하게 한다. 그리고 뱃머리에 주먹 크기의 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돌은 고기들을 불러 모으는 데 사용된다. 고기떼들이 흩어질 때 돌을 던지면 먹이인 줄 알고 고기들이 그곳으로 몰려든다.



<그림 27> 그물 후리기

출처 : 울진문화원

② 시망그물

우럭, 열기, 고래치 등을 주로 잡는 그물인데 그물의 눈이 3~4치 되는 홀그물이다. 이 그물은 길이가 150~200m 정도 되고 폭은 수심에 따라서 다양하다. 고기를 잡는 방법은 네모지게 생긴 그물을 째를 중심으로 동그랗게 설치를 한다. 이때 그물을 가라앉히기 위하여 그물에 닻이나 보돌, 멍게돌 등 무거운 것을 매단다. 그리고 그물이 물 위에 떠 있게 하여 우째를 단다. 저녁에 그물을 설치하고 아침에 거둬들인다.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을 수 있다 하여 ‘오만그물’이라고도 한다.

③ 쌍끌이 그물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는 그물이다. 그물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다양한 고기가 잡힌다.

④ 후릿그물

해저가 모래나 펄로 된 평탄한 내만에서 울타리처럼 생긴 긴 그물을 바다에 길게 둘러쳐 놓은 그물의 양쪽 끝을 육상으로 잡아당긴다. 과거에 많은 인력이 있을 때 사용하던 방법으로 두 척의 배가 그물을 반씩 나누어서 싣고 나가서 고기떼를 중심으로 하여 육지까지

그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지휘자에 의하여 그물을 육지 쪽으로 끌어 올린다. 이러한 방법으로 잡히는 고기의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멸치나 양미리를 많이 잡았다. 이 그물의 크기는 800~1,000m 정도이며, 그물의 재질은 옛날에는 면을 사용하여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망사나 나일론이 주종을 이룬다.

(3) 낚시를 이용하는 방법

① 가잠낚시

이것은 주로 도다리 따위의 가자미류를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낚싯바늘의 크기는 일반 낚시보다 작다. 방법은 끝바리와 비슷하다.

② 끝바리

낚싯바늘에 미끼를 매달아서 각기 수심을 달리하는 곳에서 낚시를 놓고 어느 수심에서 고기가 잡히는가에 따라 고기 잡을 준비를 해서 바다에 나간다.⁴⁰ 따라서 한 종류만의 고기를 잡는다. 이 방법으로 주로 잡는 고기는 우럭, 가자미 등이다. ‘홀낙’이라고 한다.

③ 문어낚시

낚싯줄에 바늘을 설치하는 간격을 한 뼘 정도로 하여 20~30개 정도의 바늘을 매단다. 파도에 움직이도록 바늘 사이에는 굴피나무 껍질이나 참나무껍질을 매달아 문어가 먹이인 줄 착각하고 이를 먹으려고 할 때 낚싯바늘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문어끝발이라는 것은 게, 닭고기 밑에 철사를 넣고 돌을 매달아서 가라앉힌 다음 끌고 다니면서 먹이를 먹으려고 달려드는 문어를 잡는 방법이다.

④ 오징어 낚시

오징어는 밤에 낚시를 이용하여 잡는다. 낚시 또한 다른 고기를 잡는 바늘과 다른 모양으로 독특하게 생겼다. 오징어를 잡는 방법은 밤에 불을 환하게 켜두면 오징어들이 불빛을 보고 모여든다. 이때 물레를 이용하여 낚싯줄을 감아올리면 오징어들이 바늘에 꿰여 따라 올라온다. 이러한 방법을 홀치기라고 한다. 1980년대 이후 채낚기 그물로 발전했다.

40. 예를 든다면 수심 3m의 낚시와 수심 5m의 낚싯줄을 준비하여 바다에 던져 놓는다. 만약에 5m에서 고기가 잡히면 그 고기를 잡기 위한 준비를 하여서 바다에 나가고, 3m에서 고기가 잡히면 그것을 잡으러 바다에 나가게 되는 것이다.

⑤ 외줄낚시

일반 사람들이 즐겨 하는 낚시와 비슷하다. 줄 끝에 바늘을 매달고 낚을 묶은 낚시 한 개를 바다에 던진다. 이어 끝바리 낚시처럼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고기를 잡는다. 이 방법으로는 많은 양의 고기를 잡지 못한다. 좀 더 많은 양의 고기의 잡기 위해서 한 줄에 20~30개의 바늘을 묶어서 고기를 잡는 ‘자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잡는 방법은 같다. 이 방법으로 주로 잡는 고기는 광어와 도다리이다.

(4) 통발과 문어단지를 이용하는 방법

① 문어단지

미끼로 다랑어나 고등어 도막을 넣어 사용한다. 옹기 항아리를 깨어지지 않도록 새끼로 묶어서 바다에 던져 놓는다. 한꺼번에 가지고 나가는 항아리의 수는 150~200개 정도이다. 문어는 구멍으로 들어가는 성질이 있어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3월과 4월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의 문어의 크기는 조금 작다.

② 정치망 어업

정치망은 고기잡이 방법상 유도함정어법에 속하며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상당히 장기간 고정해 놓기 때문에 정치망이라 한다.⁴¹ 정치망 부설장소는 상당히 얇은 내만으로부터 상당히 깊은 외해에 면한 곳까지 다양하므로 어구의 규모도 제각각이며 사용되는 그물은 방어와 같은 대형 어류를 위한 개량 대모망과 낙망이 주를 이룬다. 정치망은 크게 길그물[유도망]과 통그물[운동장]로 구성된다. 길그물은 어군의 자연적인 통로를 차단하여 통그물로 유도하기 위한 기다란 띠 모양의 그물이며, 그 길이는 어장의 조건에 따라 짧은 것은 300m 정도 밖에 되지 않으나, 긴 것은 5,000m에 이른다. 통그물의 사개는 그물 전체가 수면에 뜰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통그물에서 헛통은 중앙부 내지 원통 가까운 곳에 길그물의 끝이 오도록 부설한다. 길그물의 끝에는 고기가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도록 된 문이 있고, 입구의 양쪽에 헛통 안으로 향한 문쇠인 장자망이 있다. 입구와 마주 보는 바다 쪽 부분을 ‘헛통등’이라 하고, 헛통등 입구와 등을 연결하는 부분을 운동장, 사개를 가로지르는 줄 중 가운데 것, 즉 길그물의 연장이며 통그물의 최대폭을 결정지어 주는 줄을 어깨, 원통의 입구를 결정지어 주는 줄을 허리, 헛통의 끝을 가로지는 줄을 어깨, 원통의 입구를 결정지어 주는 줄을 허리, 헛통의 끝을 가로지는 줄의 옆줄, 원통의 끝을 가로지르는 부분을 고기받이라 한다.

41. 이병호 외, 1989, 『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84쪽

통그물은 길그물의 끝에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해안가 쪽과 바다 쪽에 이중으로 설치하는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안가 쪽의 것을 선장이라 하고 바다 쪽의 것을 후장이라 한다. 정치망어업에 사용되는 어선은 두 대가 필요하다. 큰 배(揚網船, 母船)와 작은 배(傳馬船, 子船)가 그것인데 큰 배는 물 보러 갈 때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어획된 고기들을 보관·수송하는 데에 그 주요 역할이 있다. 전마선은 어장에 도착해서 양망 작업을 할 때 2~3명의 선원이 타는 배이다. 대체로 자선은 공동어장에서 미역을 채취할 때 사용되는 전마선과 유사한 것으로 무동력이며 재질은 나무이다. 그 규모는 길이가 4m, 선미의 폭이 1.5m 정도 되는 것으로 노를 젓게 되어 있다.

③ 통발

현재 울진 해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로 잡는 고기는 바닷장어와 문어이다. 과거에는 대나무로 만든 통발을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철사와 그물을 이용하여 만든다. 이 통발을 사용할 때는 2개의 보조 대나무가 필요하다. 대나무로 만든 통발보다 배에 싣고 다니기가 편리하고 보관할 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5) 정어리바리[1940년대]

울진지역에서 정어리 어업이 대성황을 이룬 것은 일제시대 후반기였으나, 정어리 어업이 시작된 역사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까지 소급된다.⁴² 정어리는 군유성으로 난류성 어족이다.

정어리잡이가 한창이던 당시 정어리 기름공장은 기성리 세 곳을 비롯하여 북면 나곡리, 덕천리[퇴천동], 죽변리, 후포리 등 울진 연안 해촌에 걸쳐 성업을 이루었다.

정어리는 두만강에서 흘러 내려오는 붉은 흙탕물이 남쪽으로 흐르면 이 물길을 따라 정어리떼가 남하하므로 범선으로 이루어진 선단이 갈바람을 타고 원산, 신포, 청진, 웅기, 서수라까지 올라가 조업을 하고 거기서 잡은 정어리는 가까운 항구에서 판매하고, 음력 10월에 기성으로 내려온다. 10월 이후에는 중부 이남에 정어리 떼가 몰리기 때문에 10월에서 동짓달까지는 기성과 부산 사이에서 정어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한 떼의 선단이, 이른바 황포돛대를 단 범선으로 갈바람을 타고 북상하는 모습은 장관이었다고 한다. 범선은 대개 길이가 40척, 폭이 12척, 높이가 6척가량이었다.

1940년대에 정어리 대량어획을 위해 정어리유자망이 사용되고 이후 건착망이 사용된다. 정어리유자망은 범선 유자망과 기선 유자망의 두 가지가 있었다. 길이 30척, 넓이 9척 내외의

42. 정어리 바리와 관련한 내용은 울진군 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0, 『울진의 문화재』에서 발췌, 요약했다.

이른바 조선 범선으로 사용하다가 이른바 ‘아이노꾸’로 불리는 개량형 범선이 사용된다.⁴³

당시의 정어리 자망은 면사제였으며, 길이는 32간[약 50m] 내외를 1필로 하여 범선유자망은 20필 기선유자망은 30~40필의 것을 사용하였다. 가을철 어군(漁群)이 농밀할 때는 어망 파손과 해상사고의 위험을 피하려고 그물의 필 수를 봄철의 절반으로 감소시켰다.

1925년부터 1942년 사이에 동해안 일대는 온어(鰯魚) 곧 정어리잡이의 최전성기였다. 당시 기업주는 물론 어업종사자들은 호화판이었다. 기름은 화학적 재료로 화약, 비누, 양초, 화장품 등의 원료가 되고 또 비료, 사료 등으로 사용되어 한때 일본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한편, 동해안 연안 어장의 경제를 좌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어리바리의 성행으로 죽변항을 비롯해 동해안의 연안 어장에는 정어리 비료제조 공장이 난립하였고, 이 일대의 어민들은 굉장한 활기를 띠었다. 그러던 정어리는 1945년을 전후하여 자취를 감추고, 1960년대에는 봄에 생산되는 추도어[秋刀魚 ; 꽂치], 여름에는 오징어잡이가 어민의 경제를 좌우했다. 1935년에서 1980년도까지의 고기잡이의 변천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울진지역 고기잡이의 변천 과정[1935~1980]

연도	고기잡이	내용
1935	정어리 바리	돛배[황포돛배], 청진, 웅기, 서수라, 초가를 출어
1943	게 바리	삿을 낸 견인선, 18km, 후포 : 통조림
1945	명태 바리 잡어 바리	음력 10~12월의 3개월간 어로 주문진 기점 척당 7~8명 승선 개인 어망 준비, 개인 어획고 수입, 뱃삿을 지불, 선주 동승
1945 1960 1975	오징어 바리 잡어 바리	동력선 출현
1979 1980	잡어 바리	정치망 풍양호 면허

(6) 잡어 바리[1970년대]

붉은색을 띠는 한 떼의 멸치를 발견하고 경험 많은 노인이 산정에서 신호하는 지휘에 따라온 마을주민이 해변에서 멸치잡이 그물을 당겨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은 해변에 배를 끌어 올리는 것과 같이 어로 협동의 정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협동작업과 함께 동력선 또는 전마선으로 4~5인에서 2~3인이 협업하는 잡어 바리가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특히 1960년대

43. 『울진군지』에 따르면 ‘아이노꾸’는 울릉도 출신 목수 윤희원이 죽변항으로 이사를 와 종래 일본식 소형범선에 발동기를 비취한 것을 원해어로에 적합치 않아 조선범선을 개량하여 발동기를 설치하였다. 이후 윤희원은 개량조선범선을 ‘아이노꾸[혼혈어]’라 명명하였으며, 죽변항을 비롯해 멀리 서수라까지 이 배가 어로행위에 투입되었다 한다.

와 70년대에 활기를 띤 잡어 바리도 크게 수확한 어종은 대구, 임연수, 가잠, 갈치, 문어, 고등어, 방어, 게바리 등이다. 유명한 멸치잡이 작업은 3시간 동안 연속작업으로 행하여지는데 조류가 역류하면 남녀노소가 모두 동원돼, 그물 당기기에 전력투구한다. 멸치는 조류를 따라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생태를 지녀, 멸치 떼가 나타나면 벌떼처럼 이동하는 모습을 육안으로 볼 수 있다. 경험 많은 노인이 마을 앞 산등성이에서 신호로서 멸치잡이를 지휘한다. 후리어업이 성행한 울진의 해촌 앞산을 ‘망산[望山; 망재]’이라 부르며, 경험 많은 어민을 ‘망쟁이’라고 부른다.

한 배에 3~4명 내외의 어부가 승선하며 그물은 각자 2개가량 가지고 연장자순으로 그물을 던져 자기 그물에 잡힌 것만 제 몫이 된다. 그중에서 각자 25%가량을 뱃삿으로 지불한다. 어부들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그물을 친 다음 날 그 그물을 건으려면 그물 친 자리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어민들은 오랜 어로 경험을 바탕으로 투망을 할 때 양 끝에 부표나 대나무 깃발을 부착하여 띄워놓는다. 이때 바다에서 바라보이는 먼 산의 봉우리와 가까운 산의 봉우리 간격에 맞추어 부표를 띄우는데 이른바 삼각구도법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동력선과 무동력선인 전마선이 함께 작업을 하며 한배에 보통 3~4명이 승선한다. 그물은 잡는 고기에 따라 다양하다. 몇 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흘치기 그물 : 가장 오래된 그물로서 눈이 가늘고 명주실로 되어 있다.
- 게그물 : 세로 2m, 가로 120m이며 눈이 굵고 게를 주로 잡는다. 한 번에 100~120마리 정도가 잡힌다.
- 오만그물 : 일명 명태그물이라고도 하며,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힌다고 하여 오만그물이라 부른다.
- 방어그물 : 큰 고기를 잡는 그물
- 후릿그물 : 멸치 등의 작은 고기를 잡는 그물, 눈이 가늘고 나일론 실로 되어 있다.
- 삼중망 : 동력선에 싣고 다니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물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 정치망 : 일명 ‘오식’이라고 부르며, 제2종 공동어장에 치는 것이다. 그곳에 그물을 쳐놓고 아침마다 걷어 드린다.

2. 어구(漁具)⁴⁴

1) 강천어구

강천어구로는 거랭이, 톱, 작살, 물총, 가래창, 창, 돌, 반두, 가리, 통발, 보쌈, 섬, 어항, 낚시 등을 들 수 있다.

① 가래창

긴 작대기 끝에 쇠 날을 박은 것이다. 바깥쪽은 얇게 썰어서 날을 세웠으며 끝은 낚시처럼 날카롭다. 주로 뱀장어를 잡을 때 쓰인다.

② 가리

족대 모양으로 위는 좁고 아래는 벌어지도록 둥글게 모아 새끼로 엮은 것이다. 봄철에 못의 물이 줄면 흙탕을 쳐서 물을 흐려놓는다. 이를 견디지 못한 고기들이 물 위로 떠오르는 때 먼저 가리에 가두었다가 손으로 잡아 올린다. 주로 붕어, 가물치, 메기 따위를 잡는다.

③ 거랭이

긴 손잡이 끝에 타원형의 틀을 붙이고 거기에 그물을 달아맨 것이다. 붕어, 미꾸라지, 망둥이 따위를 잡을 때 사용하며 냇가 풀숲에 숨은 고기를 훑거나 떠올린다.

④ 낚시

낚시의 종류는 고기에 따라 다르다. 대개 잉어낚시는 바늘 3개를 걸므로 삼봉낚시라고도 한다. 송어낚시는 줄 끝에 3~4개의 바늘을 달며 이를 사슬낙이라고 한다. 또 붕어나 모래무지를 잡는 낚시를 견지낚시라고도 한다.

⑤ 물총

짧은 대나무의 한쪽을 깎아내고 여기에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장치한 것으로 고무줄을 연결해 잡았다 놓으면 튕겨 나간다. 저수지와 같은 물이 많이 고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메기나 붕어, 가물치 등을 잡을 때 사용한다.

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⑥ 반두

두 개의 대나무 사이에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그물을 잡아맨 것으로 아래쪽에 작은 납덩어리나 돌을 달아서 그물이 물에 가라앉도록 한다. 한 사람은 물이 흐르는 아래쪽에 반두를 벌리고 섰고, 다른 한 사람은 상류에서 고기를 몰아내어 반두 속으로 가두어 잡는다.

⑦ 보쌈

쪼갠 굴로 짠 바구니 안에 갯목이나 된장을 따위를 넣고 고기를 유인하여 잡는 방법이다. 주로 송사리, 작은 붕어 따위를 잡는다.

⑧ 섬

짚으로 짠 가마니이다. 이 안에 갯목을 붓고 짚과 갯대를 성글게 넣어서 고기들이 모여들기 좋도록 꾸민다. 붕어, 메기, 가물치, 미꾸라지 등이 이 안에 들어와서 겨울을 난다. 이듬해 초봄에 섬을 들어내어 고기를 잡는다.

⑨ 어항

유리로 만든 그릇으로 안에 된장이나 갯목을 넣고 물에 담가 두면 냄새를 맡은 고기가 모여든다. 어항으로 한번 들어간 고기는 다시 나올 수 없다. 어항이 없을 때는 바구니나 대야를 형겅으로 싸매고 구멍을 뚫어 고기를 잡는다.

⑩ 작살

긴 장대 끝에 끝이 날카로운 틀을 끼운 것으로 날은 2~3개이며 날 위쪽에 미늘이 달렸다. 모래무지나 붕어를 잡을 때 주로 쓰인다.

⑪ 창

창은 저수지와 같은 곳의 물을 빼내어 깊이가 무릎께에 이르렀을 때 물속에 들어가서 창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 쓰인다. 주로 가물치나 메기 따위를 잡는다.

⑫ 통발

모양은 가리와 비슷하나 바닥의 안쪽에 대조각을 둥글게 대고 작은 구멍만을 남겨놓아서 한번 들어간 고기는 빠져나오지 못 하게 한다. 또 윗부분에 고기 먹이가 될 만한 것을 넣고 한 동안 물속에 두었다가 고기를 잡아내기도 한다.

2) 바다어구

① 그물류

가. 걸그물(刺網) : 물살을 가로질러 쳐 두었다가 그물눈에 꽂히거나 얹혀든 고기를 잡는 해촌에서는 바다 일이 없는 날이면 사시사철 그물짜기, 그물수선작업에 매달려야 한다. 그물눈의 크기는 어종에 따라 다르다. 바다 밑에 울타리처럼 쳐서 청어, 대구, 명태 따위를 잡는 저자망(底刺網), 물의 표면에 띄우고 삼치나 꽁치 따위를 잡는 유자망(流刺網), 유자망과 같으나 그물이 한쪽을 닻에 고정해 송어, 연어, 고등어 따위 잡는 부자망(浮刺網), 고기떼를 둘러싸서 잡는 선자망(旋刺網) 등이 있다. 선자망은 주로 송어나 전어 따위를 잡을 때 쓰인다.

나. 후릿그물(地曳網) : 자루처럼 생긴 그물을 끌고 다니면서 고기를 가두어 잡는 방법으로 예전에는 사람이 끌었으나 근래에는 배를 이용하며 종류는 다양하다. 예전의 후릿그물은 포구의 육안(陸岸)에 그물을 쳐 두었다가 양 끝을 사람이 끌어 올려 고기를 잡았다. 주로 멸치를 잡을 때 쓰여 울진지역에서는 ‘멸치후리’라 한다.

다. 들그물(敷網) : 수중에 그물을 펴 두었다가 고기가 물려들 때 떠올려서 잡는 방법이다. 울진지역에서는 과거에 저녁 무렵 횃불로 멸치를 끌어모은 뒤, 보자기 모양의 그물로 건져냈다. 들그물도 조업방식에 따라 부부망(浮敷網)과 저부망(底敷網)으로 나눈다.

라. 두릿그물(旋網) : 고기를 둘러싸거나 밤에 바닥에서 떠올려 잡는 방법이다. 밤에는 집어 등으로 고기를 모은다. 두릿그물 어법으로는 배 한 척으로 하는 외두리, 배 두 척이 함께 작업하는 쌍두리의 두 종류가 있다.

마. 자리그물(建網) : 대체로 일정 기간 수중의 한 곳에 고정해 설치하는 그물로 이를 정치망(定置網)이라 한다. 정치망 어법에는 대망류(臺網類), 낙망류(落網類), 걸망류, 장망류(張網類) 등이 있으며 안강망(鰓鰓網)은 장망류의 일종이다.

바. 채그물(抄網) : 원시적인 그물의 형태로 지나가는 고기를 아래에서 위로 떠 올려 잡는데 쓴다. 주로 멸치를 잡을 때 사용한다.

② 낚시류

한 줄에 낚시 한 개 또는 서너 개를 달아서 고기를 잡는 일본조(日本釣)와 긴 몸줄에 수백 또는 수천 개의 낚시줄을 거는 주낙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대개 강천 어구에서 사용하는 낚시류는 일본조에 속하는 것이며, 주낙류에는 사슬낙, 줄낙이 포함되는데, 이것도 어종에 따라 대구주낙, 준치주낙 등으로 부른다. 울진 연안 해안에서는 주로 대구주낙이 성행했다. 2~3인의 어부가 함께 작업을 하며 대개 낚시를 4~5벌가량을 준비해둔다.

③ 막이류

가. 돌살(石防簾) : 해안이 육지 쪽으로 들어와서 입구는 좁으나 안이 너른 땅의 목에 돌을 쌓아 막거나 돌로 담을 쳐서 썰물에 휩쓸려 들어온 고기를 하루에 1~2회 건져내는 전통 어법의 하나이며 대표적인 생태 어법이다.

나. 대밭(竹防簾) : 바닷물이 들고나는 물밭이 센 곳에 굵은 말뚝[지주]을 일정한 간격으로 V자형이 되도록 벌려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길이 2~3m의 대밭을 엮어 달아서 담을 쌓은 것으로 한끝에 고기를 가두는 통밭을 달아둔다. 규모는 지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개 담의 길이는 100m, 양쪽 담 끝의 너비는 60m 남짓하다. 과거에는 이를 어전[어살]이라 하였다.

다. 어장(漁帳) : ‘줄살’ 또는 ‘말장’이라고도 하며 구한말까지 주로 쓰였다. 구조는 대밭과 비슷하며 담 그물에 걸려서 통밭로 들어오는 고기를 가두어 잡는다. 그물은 새끼나 땡땡이덩굴을 사용하며 부표(浮標)는 참나무껍질이나 가중나무 껍질을 서너 겹 묶어서 썼다.

라. 덩장 : ‘들망(擧網)’ 또는 ‘주벽’이라고도 한다. 그물을八字 모양으로 벌려 세우고 좌우 끝을 둥글게 말아 둔다. 그리고 다른 한 끝에는 뒷박 모양의 통그물을 달아서 고기를 가두어 잡는다.

④ 채취류

가. 호미 : 농가에서 쓰는 것과 모습이 같으나, 날이 좁고 뾰족하다. 60년대 말까지는 대부분 이 호미로 돌이나 바위의 굴이나 미역 채취하였으며, 이후에 ‘조새’로 발전했다.

나. 조새 : 조새는 길이 20cm 내외의 막대기 아래쪽에 ‘ㄱ’자 진 쇠꼬챙이를 박았으며, 어른 주먹만큼 둥근 머리 쪽에도 쇠 날을 꽂았다. 머리 쪽의 쇠로 굴의 겉껍질을 까고 아래의 꼬부라진 쇠로는 굴알을 긁어낸다.

다. 굴갈퀴 : 쇠스랑처럼 긴 장대 끝에 2개의 발을 달아 바다 밑에서 서식하는 굴을 긁어 올린다.

라. 조개틀 : 갯바닥의 조개를 긁어모으는 틀이다. 빗살처럼 쇠 날이 촘촘히 박힌 몸체 좌우에 끈을 매고 사람이 끌어 조개를 긁어모은다. 최근에는 배 위에 장착한 기계식으로 발전했다.

마. 다시마 낫[설낫] : 긴 장대 끝에 낫을 잡아맨 것으로 물속에 자라고 있는 다시마를 잘라 건져 올린다.

바. 썰시래 : 긴 박달나무로 된 손잡이 끝에 손바닥만 한 네모진 철판을 붙인 것으로 날 끝이 조금 넓고 예리하다. 썰이나 백합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한다.

사. 틀개 : 굵은 나무 기둥에 +형으로 나무를 촘촘히 박고 긴 자루를 붙인 것으로 물속에 넣고 돌리면 미역이 감겨 붙는다.

아. 해녀구 : 태왁, 망사리, 빗창, 호미, 갈퀴리, 작살, 잠수경 등이 있다. 주로 미역이나 해삼, 성게, 전복 따위를 채취할 때 사용하는 해녀들의 전문 어구이다.